

이번엔 허가 특혜... 광산구 또 건축비리 논란

지구단위계획 무시 상가 건축면적 확대 승인

광주시 “잘못된 것”... 사업변경면 계약자 피해

광주시 광산구가 관련 법 규정을 잘못 해석, 상가 신축 허가규모를 크게 늘려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은 해당 건축주에 분양대금으로 100억원 가까이 ‘특혜’를 준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도 광산구의 건축 행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역 상인들과 같은 입장을 내놓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여기에 비슷한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가 건축물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가 광산구 정덕동 1105번지 일대 1만1977㎡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요청한 질의에 ‘도시형 생활 주택이 수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된 연립주택 의미에 포함되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건립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관련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A건설사가 해당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4층 76세대·대지면적 8216㎡)을 세우고 나머지 3768㎡에 2층 규모의 상가(점포 36개)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자 지난 6월 승인했고 이후 ‘특혜’라는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광주시에 행정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를 했다.

광산구의 경우 광주시가 수립한 ‘수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은 세대당 6㎡, 최대 5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위법 행정을 펼쳐 해당 건축주가 훨씬 많은 상가 점포를 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지역 상인들의 주장이다.

광주시도 관련 내용을 질의한 광산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는 상가 규모를 감안해 건설해야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보내는 등 광산구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산구가 상위조항인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상가 면적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도시형생활주택 특례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가 광주시 의견을 반영해 해당 상가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건설중인 상가가 다시 헐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또 변경되더라도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미 상가 분양 계약이 체결된 데 따른 일반 계약자 피해도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비슷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상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산구는 이와관련,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과정의 특례 조항을 적용, 사업승인을 내렸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돼 광주시에 관련 질문을 해놓은 상태”라며 “광주시 입장을 받아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고속철 요금 5km 가든 82km 가든 8400원

거리 고려 않고 일률적 부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고속열차 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수십 km를 가든, 불과 5km도 안 되는 구간을 가든 똑같이 8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21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82km 이내 거리에 있는 고속철도 85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노선별로는 전라, 호남선이 47개 구간, 경부, 경전선이 38개 구간이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책정한 km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코레일이 책정한 이 km당 요금을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이 14개

구간, 1000원도 안 되는 구간도 3곳에 달한다. 실제 구간거리가 3.6km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구간도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대로라면 373원에 불과하지만 8400원의 요금을 받아 8027원의 차액을 더 챙기는 것이다. 이 구간의 km당 요금은 2333원으로 기존선 km당 요금 104원보다 무려 22.4배나 많다.

또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도 거리가 14.9km에 불과해 1549원만 받으면 되지만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km당 564원의 운임을 받는 셈으로 현재 일반선 km당 요금보다 5.4배가 많은 것이다.

코레일은 “고속열차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고객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광주 미성년 대상 성범죄율 전국 평균 웃돌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시·도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성범죄가 1591건 발생했는데 이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35.2%(560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33.8%를 넘는 수치다. 광주지역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392명으로 전체(1166명)의 33.6%였다.

광주지역 성범죄 피해자도 10명 중 1명꼴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829명 중 105명(12.7%)이 미성년자였다. 한편, 전남지역 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6%로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43.7%)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심 유혹하는 가을 국화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 가을전령사인 노랗고 하얀 국화꽃이 꽃망울을 터트려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북구청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 가을전령사인 노랗고 하얀 국화꽃이 꽃망울을 터트려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북구청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4 달출몰 04:55
해질름 17:49 달자침 16:53

쌀쌀한 가을바람
기압골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낮부터 비가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4/20	보성	비온뒤	13/19	
목포	비온뒤	15/19	순천	비온뒤	14/20
여수	비온뒤	14/17	영광	비온뒤	12/19
나주	비온뒤	13/20	진도	비온뒤	15/20
완도	비온뒤	15/20	전주	비온뒤	12/18
구례	비온뒤	13/20	군산	비온뒤	11/18
강진	비온뒤	14/20	남원	비온뒤	13/18
해남	비온뒤	15/20	홍산도	비온뒤	15/18
장성	비온뒤	12/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3.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5~2.0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	북~북동 2.0~4.0

◇생활지수

식중독	47
운동	20
빨래	20

◇주간 날씨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	☀	☀	☀	☁	☀	☀
9/20	8/21	10/22	10/23	11/23	11/22	10/21

광주 고교 10곳중 9곳 ‘EBS교재 수업’

전국서 가장 높아... 전남은 29%로 최저

광주지역 고등학교 10곳 중 9곳은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EBS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70%를 EBS교재와 연계 출제하다보니 빛이 반짝인 현상이지만, 정규수업시간에 EBS교재나 사설문제집을 사용하는 관행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전국 일반 고교 EBS교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07곳의 일반계 고교 중 EBS 교재를 정규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곳은 64.5%인 1165곳이었다.

광주지역은 전국에서 EBS교재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54곳 중 48곳(88.9%)이 정규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사용하는 있었다. 10곳 중 9곳은 EBS교재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부산이 80.0%, 대전 76.0%, 서울 74.9%, 대구 74.0%, 경북 73.2%, 경기 70.

4%, 전북 64.1% 순이다.

전남은 9%에 불과한 28곳(29.2%)만이 정규 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사용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3 정규수업시간에 수능 과목 모든 영역에서 EBS교재 수업이 80%를 넘었다. 언어영역 83.3%, 수리 85.1%, 사회탐구 81.4%, 과학탐구 85.1%, 외국어 83.3%였다.

이는 전국 평균 언어 53.1%, 수리 46.9%, 사회 45.1%, 과학 39.8%, 외국어 56.6%와 비교하면 1.5배가량 높은 것이다.

김희선 의원은 “EBS 문제풀이식 교육이 수능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므로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될 수 있지만 정규수업시간에 과도한 사설 교재 활용은 문제가 있다”며 “사설교재 활용은 보충수업시간에 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8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원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감수 | 전권 124,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원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332-4972